

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

2016. 1. 14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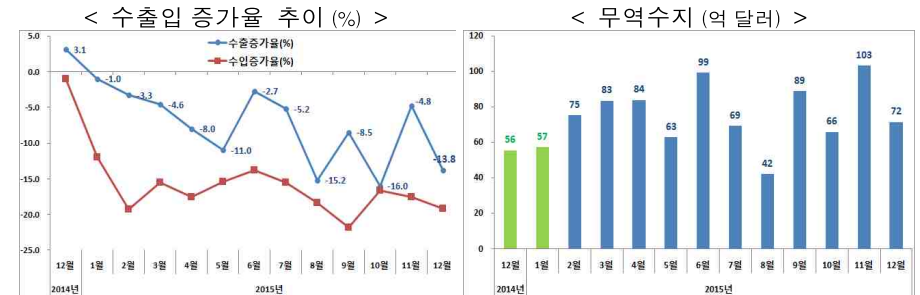
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❖ 목 차 ❖

I. 수출 현황	1
II. 2016년 정책과제	3
1. 수출시장	4
2. 수출품목	10
3. 수출주체	13
4. 수출방식	15
5. 지원체계	17
III. 기대성과	18

1 '15년 수출입 동향 및 평가

- (실적) 수출 5,272억 달러(△7.9%), 수입 4,368억 달러(△16.9%), 무역수지 흑자 904억 달러



I. 수출현황

- (부진사유) 세계경제 및 교역 성장 둔화*, 유가 등 원자재가 하락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

* 세계경제성장률(%): ('14)3.4→('15)3.1, '15.1~10월 기준 세계 주요 70개국 교역 △12.1%

** 두바이유(\$/B): ('14년) 96.6 → ('15년) 50.7 (△47.5%)

유가영향품목 수출 감소(289억 달러)가 총 수출 감소분(455억 달러)의 64%

- 中 수입구조 변화*, 해외생산 확대**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

* 가공무역 억제, 자금률 제고로 中 중간재 수입 비중 하락('00년)64%→('14년)50%

** '08→'14년 해외생산비중(%): (자동차)27.6→49.8 (휴대폰)45→86.3 (LCD)0→13.2

- (평가) 수출입 감소에도 불구하고,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출 동력 유지

- ① (세계 수출순위) 프랑스를 제치고 7위에서 6위로 한 단계 상승(WTO)

* '15.1~10월 수출증가율(%), WTO): 中 △2.5 美 △6.5 獨 △11.6 日 △9.5

네덜란드 △16.5 韓 △7.6 佛 △13.6

* '14년 대비 '15.1~10월 순위변화: (우리나라) 7 → 6위 (프랑스) 6 → 7위

② (수출품목) 자동차·철강 등 주력품목의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, 화장품·SSD 등 신규 유망품목 수출 약진으로 수출품목이 다양화

* 유망품목 수출증가율('15.1~12월 누계) : 화장품 53.5 SSD 26.6, OLED 25.0

③ (수출시장) 현지 생산기지로의 수출 확대로 베트남이 우리의 제3위 수출상대국으로 부상('14년 5위)

* 수출대상국 순위 : ('14년) : (1)중국 (2)미국 (3)일본 (4)싱가폴 (5)베트남
('15년) : (1)중국 (2)미국 (3)베트남 (4)일본 (5)싱가폴

④ (수출주체) 중소·중견기업 수출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

* 중소·중견기업 수출비중(%) : ('13)32.8 → ('14)33.8 → ('15.1~11월)35.7

2 '16년 수출입 전망

□ (전망) 세계 경제·교역의 완만한 회복 등 영향으로 수출입 모두 전년 대비 소폭 회복 전망, 저유가, 신흥국 경기둔화 심화 등 하방리스크 상존

* 세계경제성장률(% IMF): ('15)3.1→('16)3.6, 세계교역물량증감률(% WTO): ('15)2.8→('16)3.9

※ '16년 전망(억달러) : (수출)5,382(2.1%) (수입)4,482(2.6%) (무역수지)900

□ (대외여건) 中 성장 둔화, 저유가 및 美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기 둔화 심화, 中과 기술격차 축소, 주요국 통화 약세 등은 위기요인

* 中 경제성장률(% IMF): ('15년) 6.8 → ('16년) 6.3

* 한-중간 기술격차 : ('12년) 1.9년 → ('14년) 1.4년

* 日·EU 중앙은행 양적 완화 지속에 더하여 최근 中 위안화 평가절하 실시

○ 한-중 등 신규발효 FTA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, 선진국 경기회복 및 인도·이란 등 고성장 기대,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대 등은 기회요인

* '15년 말 신규발효 FTA : 한-중(12.20일), 한-뉴질랜드(12.20일), 한-베트남(12.20일)

* 경제성장률 전망('15→'16년, IMF) : (선진국)2.0→2.2 (인도)7.3→7.5 (이란)0.8→4.4

*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(십억달러, eMarketer) : ('14)1,316→('15)1,592→('16)1,888

◇ 위기요인 적극 대응, 기회요인 최대한 활용해 수출 회복 달성

◇ 부가가치 창출 중심으로 수출의 질적 고도화 추진

II. 2016년 정책과제

2016년 정책과제

❖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수출시장·품목·주체·방식·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.

1 2015년 핵심개혁과제 주요성과

① FTA 전략적 활용 및 네트워크 확대

- 중소기업 FTA 활용률 : ('14) 59% → ('15.11월) 65.1%
 - * FTA 1380 콜센터, 전국 17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한 교육·상담·홍보 및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·확산

② 정상외교를 활용한 해외진출 확산

- 중동순방 4개국 對韓투자 증가 : ('14) 2.1억불 → ('15.11월) 13.7억불
 - * 중동순방 계기 포스코-사우디 PIF 투자 MOU·계약체결, 11.2억불 외투신고(6월)

③ 중소기업 시장개척 역량 강화

- 중소기업 수출비중 : ('14) 33.8% → ('15.11월) 35.7%
 - * 2,400개 업체에 무역전문인력을 지원, '15.11월까지 총 802개 수출기업화 성공

2 2016년 정책과제

- ① [시장] 한중 FTA·정상외교 활용, 맞춤형 지원
- ② [품목] 소비재, 서비스, 기술·브랜드 다변화
- ③ [주체]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
- ④ [방식] 전자상거래 수출 획기적 증대
- ⑤ [지원체계] 제조업 위주 → 소비재·서비스 분야로 확대

① 수출 시장

1 수출시장 : 한중FTA 등 활용 中 내수시장 진출

연장의 목소리 中 진출어로 : 유통망 확보(46.2%), 비관세장벽(26%), 시장정보(12.5%)
*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(1.6~11일)

1 한중 FTA 활용 지원

□ (정보제공·컨설팅) 부처합동으로 對中 수출기업 중 FTA 활용경험이 없는 25,000개사 대상 홍보, 정보제공·교육·컨설팅 중점 지원

* 지원 부처: 산업부, 관세청, 중기청 등

○ FTA활용이 바이어 요청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, 중국 현지 바이어 초청 행사 및 현지 FTA활용 설명회 개최

* 한·중 FTA 종합대전(2월), 현지 FTA활용설명회(베이징, 상하이, 칭다오, 청두 등 10회) 개최

□ (유통) 지역별 로컬유통망을 활용해 대중시장 접근성 제고 및 지역별 틈새시장 진출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, 중소기업의 대중진출 지원

○ 중국내 소비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2,3선 도시대상 주요 유통채널 진입, 통관지원 및 홍보마케팅 등 패키지형 서비스 제공

* 창사 해피고/뿌뿌까오 특판전, 청두 이토요카도 판촉전, 시안 화문원자 판촉전 등

□ (후속협상) 한중 FTA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, 국내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

○ 후속협상 연내 개시를 위해 중국측과 협의하고 금년 상반기 국내 절차(타당성 검토, 공청회, 국회보고)를 추진

2 통관·비관세 애로 해소

□ (원산지) 한중 세관간 '원산지 자료교환시스템' 구축하여 중국통관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및 신속 통관 지원 (7월 전면시행)

□ (비관세) 한중 FTA 이행 기구 및 정부간 고위급 채널을 활용하여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강화

○ 한중 FTA 비관세조치작업반 조기('16.1월) 개최로 해소사례 발굴, 홍보
- '16년 신설되는 장관급 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(韓산업부-中질검총국)을 통해 핵심 비관세장벽 해소 추진 ('16. 1/4분기)

○ 對中 수출제품 개발 및 검사비용 절감 및 수출 통관기간 단축으로 對中 수출경쟁력 제고와 수출증진에 기여

▶ 한·중 주요 비관세 장벽

- 식품위생증서 발급시간 단축: 우리식품의 대중 수출시 신속한 통관을 위해 국내검사기관을 지정하여 동 기관이 발급하는 검사성적서 인정 요구
- 리튬이온전지 안전기준 시행: 노트북, 휴대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에 대해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적 사항 요구
- HDMI 모니터 관세분류: HDMI 모니터를 기타용(30%관세)이 아닌 WCO(세계 관세기구)에서 결정한 컴퓨터용 모니터(0%)로 분류할 수 있도록 요청

3 중국발, 중국향 투자 중점유치

□ 식품, 문화콘텐츠, 복합리조트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자본 중점 유치 ('15년 19억불→'16년 25억불)

○ 투자애로해소 전담팀을 가동(연중) 하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입지·조세·현금 패키지형 지원

○ 복합 리조트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* ('18.5월 일몰) 추가 연장 조기확정 추진('16. 上)

* 법무부가 지정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(지역에 따라 5억 또는 7억)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(F-2) 부여

□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* 등 새만금 한·중 산업협력단지를 규제 프리존(Free zone)화하여 투자유치 거점으로 조성

* 현재 내국인 고용인원의 30%까지 허용되는 외국 전문인력 고용제한 완화 등

2 수출시장 : 정상외교 등 통한 맞춤형 시장 진출전략

현장의 목소리 정상외교 등으로 프로젝트 수주기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금융조달 어려워.. (중동경제사절단 간담회, '15.8월)

1 선진국 : 경기회복세 적극 활용

- (미국) 철강 수입규제 등 우리 기업의 진출애로에 적극 대응하고, 승용차 무관세('16년) 등 FTA 수혜품목의 활용 극대화
 - 新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에너지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, 자동차·항공·IT 등 글로벌 기업과의 공급망 구축을 통한 부품소재 진출
 - * 한미 청정에너지 정책대화 및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(6월), 글로벌파트너링 상담회(연중)
- (EU) 기술 선진국인 서·북유럽과 차세대 기술 협력 기반 마련 및 중유럽의 EU기금 연계 인프라 시장 진출·원전건설 참여 추진
 - 이탈리아와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술 협력 본격화 및 독일과 원전 해체 기술 협력 추진
 - * 3GF 계기 對덴 산업협력 강화(4월), 한-이 산업기술공동위(11월), 독일 경제공동위(下)
 - 체코의 신규 원전 2기('19년 공개입찰 예상) 건설 및 '16년 본격화가 예상되는 V4국가의 EU 기금 프로젝트 참여 추진
 - * 중유럽 산업협력위(3월), 제3차 한-체코 원전협력공동위(下)
- (일본) 한일 관계 회복 모멘텀*을 활용 對日 수출 확대 추진
 - * 한일 정상회담('15.11) 3년반만에 재개, 위안부 문제 타결('15.12.28) 등
 - 일본의 경제성장 및 소비확대에 대응한 신규시장 진입(IT, 보안시스템, 전력기자재 등)로 일본 수출 저변확대 촉진
 - * 한일 산업기술페어('16.10월), 나고야 비즈니스산업협력단('16.下, 한일 각 20여개社)
 - 일본의 선진 제조기술·경영 기법 습득을 지원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추진
 - * 일본기업현장기술연수 사업 등

- (호·뉴·캐) FTA 발효 계기 산업협력 다변화 및 농림수산분야 교류 확대를 통한 선진기술 습득
 - 금융·법률·영상 등 서비스 분야 한-호주 협력 강화
 - * 한-호 민간경험위원회 및 서비스진흥포럼('16.下)
 - 한-뉴 FTA 농림수산협력* 이행을 통한 미래 농어촌 경쟁력 제고
 - * 농축수산업 훈련비자, 수의역학분야 워크샵, 전문가 훈련·연구협력 등
 - 한-캐 FTA 수혜 유망품목(자동차, 가전, 섬유 등)의 활용을 극대화하고, 에너지·자원, 산업기술 교류 등 상호 관심분야의 협력 강화
 - * 한-캐 FTA 공동위원회('16.上), 한-캐 에너지 포럼 개최('16.下)

2 신흥국 : 제재 해제, 성장 모멘텀 활용

- (이란) 경제·금융 제재 해제('16.2~3월 전망) 이행일 직후 제11차 한-이란 경제공동위(장관급, 2월)를 개최하여 경험 기반 마련
 - 공동위 계기에 경제사절단(100여명) 파견하여 교류 활성화 도모
 - * 무역진흥, 전자무역, 신재생에너지, 중소기업, 환경 등 15개 MOU 체결
 - 교역 제한 규제 해제 및 원화결제대체시스템 구축 등 단기 수출 진흥 조치 시행(3월)
 - 금융지원 협정 체결(수은 50억불, 무보 20억불)로 병원, 발전, LNG선박, 철강(제철소) 등 진출 촉진
 - * 차바하 제철소 건설, 테헤란의대병원 건설 등 실질적인 성과 달성
- (베트남) '16년도 한-베 FTA 2차 관세인하를 활용한 부품소재·유망 소비재 시장 공략 및 ODA 성과에 기반한 신규시장 개척

- **FTA활용지원센터***(3월)와 **비관세장벽현지대응반**(3월)을 신설하고, 경제공동위/FTA 이행위 개최(10월)를 통해 한-베 FTA 활용기반 마련
 - * 센터별 전담인력 운영 및 바이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규 수출수요 창출 유도 : 호치민(4회, '16.3·6·9·11), 하노이(4회, '16.3·7·10·12)
- 베트남 특화형 농기계 공동개발·보급·인력양성 ODA 사업을 실시, 메콩델타 농기계 시장 신규 진출 지원
 - * 한-베트남 인큐베이터파크(KVIP, '15년 완공) 후속 신규사업
- **(인도) 제조업 육성 정책(Make In India)에 대응하여, 자동차·화학·IT 등 인도 핵심 제조업체와 제휴 지원**
 - * 한·인도 비즈니스 서밋(1월), 도요타/닛산 GP-Korea(2분기), 마힌드라 월드 시티 매칭 행사(6월) 등
- 식품, 생활용품, 패션의류 등 소매시장 진출, **온라인유통 입점 지원**
 - * 라자스탄 한국기업 전용공단 기공(6월), Korea Plus 설치(6월), 한국상품전(10월)
 - * 인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(Flipcart) 입점 지원
- 한·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한 **주력 수출품**(철강·석유화학제품) **관세 철폐, 서비스·투자 분야 추가 양허** 추진
 - * 인도의 양허수준은 약 85%로(이하 품목수)로 여타 FTA에 비해 낮은 양허수준 : 미국/EU/호주/페루 0%, 캐나다 2%, 터키 9%
- **(멕시코) 자동차·가전 등을 북미 시장진출의 생산거점化**하는 한편, 현지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의 공급망 구축을 통한 부품소재 진출
 - * 기아차 누에보레온주 생산공장 완공(16.5월), 총 30만대 생산 중 80% 북미 수출할 계획
- 멕시코 에너지 시장 개방에 따라, **신재생 등 에너지 분야 진출 확대**
 - * 멕시코는 '14년 에너지 개혁을 통해 에너지분야의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하였으며, 향후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4년까지 35%로 확대할 계획

- 정상외교를 통한 대형 성과창출을 위해 **원전, 조달, 방산 등 신규 협력사업 발굴** 및 유망사업에 대한 **금융지원 확대** 추진
 - **체코, 베트남**과 같이 성장잠재력이 크고 수주가능성이 높은 국가들 위주로 **원전 수주 활동을 집중**
 -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보험, EDCF 등 **정책금융 지원 확대*** 및 MDB 등 해외자금을 활용한 **파이낸싱 지원****
 - * 정책금융: ① 수은 해외건설·플랜트 수주 금융지원('16년, 18조원) ② 무보 해외 프로젝트 보증 확대('15년 7.2 → '16년 9.8조원), ③ EDCF 강화('16년 8,937억원, 중소기업 무이자 지원)
 - ** MDB 프로젝트 담당자 초청 및 상담회(10월)
- **메가 FTA 적극 대응** 및 유망 신흥시장과의 **신규 FTA 체결**을 통해 **미래 교역 기반 확대**
 - **(메가 FTA) RCEP**('16년 타결 목표), **한중일 FTA 협상**으로 거대 단일시장을 확보하여 역내 교역·투자 활성화
 - **TPP** 발효까지의 기간을 新통상체제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인 **산업경쟁력 강화 및 제도 선진화 계기로 활용***
 - * 국가별 비준동향, 국내 영향분석 결과, 12개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경과 등을 토대로 연내 TPP 로드맵 수립
 - **(신규 FTA) 한-중미, 한-에콰도르 협상**을 연내 **가속화**하고, **이스라엘과 협상 개시**로 첨단산업·농식품·서비스 분야 협력 확대
 - **한-EEU FTA 공동연구**로 러시아 등 중앙아 국가들과 FTA 추진 및 산업·자원 협력기반 구축

2 수출 품목

2 수출품목(1) : 소비재, 서비스, 기술로 품목 다변화

현장의 목소리 소비재, 디자인은 좋은데 품질이 미흡, R&D 확대해야
(對中 수출기업 간담회(S社, 1.11일))

1 유망소비재

- 한류, IT 융합 등과 연계하여 화장품, 패션의류, 생활·유아용품, 농수산물,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 경쟁력 제고
 - R&D(고부가 제품 개발지원*, 877억원), 마케팅(한류 연계, 면세점·온라인몰 입점 등), 인력(화장품 학과 개설, 패션 전문인력 600명 양성 등) 맞춤형 지원
 - * 신소재, 바이오 등과 융합한 주방기기+반도체 코팅기술, 화장품+세라믹흡수기술 등
 - 신사업 진출·신제품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*, 무역금융 지원
 - * 예) 피부진단기반 맞춤형 화장품 허용 등

⇒ 소비재 산업 육성 종합대책 마련('16.3월)

소비재분야 무역금융지원

- 소비재 무역보험 특별지원(한도 1.5배, 보험료 25% 할인)
- 유망 소비재 대출 확대('15년 0.5 → '16년 1조원, 수은)

2 서비스

- 문화콘텐츠(음악·게임·방송)
 - (K-Content Biz 북경센터 구축) 콘진원 북경사무소의 기능을 특화해 중국 현지 진출기업에 종합서비스 제공* 추진
 - * 중국시장 정보, 사무환경 제공 및 컨설팅, 유통·마케팅 등 지원
 - 고급정보 제공을 위한 모니터 요원, 유통 전문인력 등 운영
 - (한류 문화 ODA) 소득수준이 낮으나 한류열기가 높은 인니, 베트남, 미얀마 등 동남아 개도국 중심의 사회공헌사업 추진
 - 연예기획사의 보컬·댄스 트레이닝, 매니지먼트 시스템 교육 등으로 문화산업의 동반발전 도모 및 잠재 소비자 양성

* 시범사업 성격으로 무주YG재단과 함께 인도네시아 문화소외지역 청소년 대상 댄스, 보컬 트레이닝 프로그램 추진('16.1월, 문체부)

- **현지 진출 제조·서비스 대기업들의 CSR과 연계함**으로써 장기·지속적인 사업으로 확산 효과 제고

□ 보건·의료(G2G 의료협력)

○ **(해외 병원 프로젝트 수주) 발주처 방한 초청기업 면담, 시장조사·컨설팅·법률자문**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 수주

* 컨소시엄 및 개별기업 추진 프로젝트 10개 내외 지원(KOTRA, 2.2억원)

○ **(정보 제공) 美·日 등 10여개국 의약품 인허가 제도**와 혈액제제 등 **국외 규제정보 등 90개 정보 통합제공**(식약처)

3 기술·브랜드

□ 해외 기술이전 기반 확충 및 거점 확보를 통해 기술 수출 활성화

○ **NTB*** 기술 제공 시스템의 글로벌 사이트 개설('16.下)을 통해 국내 우수 기술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유도

* NTB(National Tech Bank) : 대학·연구소·기업의 이전 희망기술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 하는 온라인 기술사업화 정보망 (현재 약 9만건의 기술정보 제공 중)

○ 해외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기술사업화 컨설팅 거점 확충

* GCC (Global Commercialization Center)확충 계획: ('15) 2개소 ⇨ ('16) 4개소

□ 바이오 신약 개발 관련 기술 수출 기반 구축

○ 신약개발 범부처 공동 R&D 사업 확대('11년~'20년 총 1조600억원)

* 한미약품 사례 : 글로벌 제약사에게 기술이전 성공으로 '15년 7.8조원 기술 수출계약 체결

서비스분야 무역금융지원

- 서비스종합보험 지원 확대('15년 1,800 → '16년 3,000억원)
- 유망 서비스산업 대출 확대('15년 2.6 → '16년 3.5조원, 수은)

2 수출품목(2) : 기존 주력품목 맞춤형 수출지원

현장의 목소리

반덤핑 등 수입규제, 외국인 숙련공 부족, 판로 개척 어려움

1 기초소재

□ 수입규제 애로 해소, FTA 활용을 통해 **수출기반을 확보**하고, 가격 경쟁력 제고, 마케팅 지원으로 **수출경쟁력 강화**

○ **(철강)** 주요 수출대상국의 반덤핑·세이프가드 조치 적극 대응

* 현재 총 16개 국가, 70개 품목 규제 및 조사 중(인도, 멕시코, 미국 등)

○ **(석유화학)** 한-아세안, 아세안-중 FTA를 활용한 대중국 전환수출 추진

○ **(석유제품)** 고도화설비 투자 지원, 원유 수입선 다변화 등 원가경쟁력 제고

○ **(섬유)** 해외전시회 참가, 섬유소재 DB구축 등 온·오프 마케팅 지원

2 정보통신

□ 국제협력 강화로 신시장을 개척하고, **신흥 유망제품 판로확대** 지원

○ **(반도체·디스플레이)** '한-중 반도체 협력센터'(심천)을 통한 중국 현지 수주 지원

○ **(가전)** 국내외 전시회, 해외면세점 연계 등 시장개척 강화

○ **(컴퓨터·무선통신기기)** 반도체저장장치(SSD), 카메라 모듈 등 신흥 성장부품 판로확대

3 수송기계

□ 중소기업 해외 직수출, 고급인력 확보 등 **수출 인프라 확충**

○ **(자동차·부품)** 중소 부품업체의 해외 완성차업체 직수출 지원

* 부품 직수출 전담무역관 확충(32개 → 40개)

○ **(선박)** 외국인 숙련 용접공 쿼터확대(현 400명→600명)를 통한 납기지연 방지

○ **(일반기계)** 이란(경제제재 해제), 카타르(월드컵 특수) 등을 활용한 수출 지원

③ 수출 주체

③ 수출주체 : 수출 중소·중견기업에 정부지원 집중

현장의
목소리

내수기업 희망지원 분야 : 해외마케팅(29.5%), 수출자금(20.8%),
컨설팅(10.1%) (2,400개사 설문조사('15.11.26~12.4))

1 내수기업 → 수출기업화

□ (마케팅) 내수기업 대상 전시회 등 참가비 대폭 인하

- * 참가비용 자부담률 : (기존) 평균 50% → (개선) 평균 30%
- * 내수기업 대상 별도 쿼터설정 : 20%

○ 첫수출·수출급증업체의 경우, 무역의 날 계기 정부포상 추진

□ (금융) 중소기업 정책자금*('15년 3 → '16년 3.5조원) 및 무역금융('15년 0.8 → '16년 2조원) 지원 확대**

- * 신규 대출기업이 수출액 10만불(초보) 또는 수출비중 40%(주력) 달성시, 1년간 대출금리 0.5%p 인하(또는 환급)
- ** 중소·중견기업에 무역보험료 50% 할인

□ (인력) 무역전문가*를 활용하여, 수출경험이 없는 내수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전과정 밀착 지원

- * 퇴직무역인력(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), 청년무역전문가양성(GTEP), 중기제품 전문 파워셀러육성(중기청) 등

2 수출기업 → 글로벌 강소기업

□ (R&D) 수출연계형과제에 6,570억원 지원(15. 5,957억원)

○ (지역특화) 과세전정시 수출 우대항목 기준(수출액 증가율, 매출대비 수출비중)을 충족하는 지역기업(과제)*에 대해 최대 5점 가점 부여

- *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: (15) 1,741억원 → (16) 1,828억원
- * 경제협력권사업 : (15) 1,234억원 → (16) 1,434억원

- (무역환경변화·ATC) 우수기술연구센터 지원 및 TBT 등 무역 환경변화에 대응한 R&D 지원

* ATC(우수기술연구센터) : (15) 697억원 → (16) 752억원

* 무역환경변화대응 : (15) 50억원 → (16) 50억원

- (글로벌전략·해외수요처연계) 수출역량, 소비재(품목지정), 투자 전략품목 등에 기반한 우수 중소기업에 기술혁신개발 촉진

* 글로벌 전략 및 해외수요처연계(중기청) : (15) 822억원 → (16) 1,036억원

- (기타) 월드클래스 300, 에특·전력기금 해외시장 진출, 국제공동 기술개발 등 해외진출 특성화 과제 지원((15)1,412억원 → (16)1,469억원)

□ (세계·금융) 수입부가세 납부유예, 해외 M&A 지원 확대

- (수입부가세 납부유예) 적용 대상 확대

* (중소) 수출 30% 이상 → 30% 또는 100억원 이상

* (중견) 수출 50% 이상

- (해외M&A) 인수자금 금리 및 한도 우대*(수은)

* 대출금리 0.2% 인하, 소요금액의 90%까지 지원, 총 10억불 규모

□ (해외마케팅) 해외교포무역인 등 활용 해외 판로확대 지원

* 세일즈랩(해외 영업대행사), 해외민간네트워크, OKTA 활용 해외진출지원

3 대·중소 동반진출 확대

□ 종합상사(10개사)·전문무역상사(216개사) 활용 중소기업 수출지원

* 무역보험료 할인(25%), 상생기금 등 활용·바우처 지급 추진, 매칭 전문인력 지원

□ 대기업 플랫폼을 활용, 역직구물 內 '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관'을 구축하여 중기제품의 입점·홍보·판매 지원 ('16. 1000개사)

* (대기업) 동반성장지수 가점 확대

(수행사) 상품 콘텐츠 제작비용 등 지원

4 수출 방식

4 수출방식 :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확대

현장의 목소리 글로벌 온라인몰의 진입장벽이 높고, 현지 물류가 큰 애로
(對中 수출기업 간담회(L社, 1.11일))

1 온라인 해외 판매 단계별 애로 해소

- (입점)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(美 아마존, 中 타오바오 등) 입점 지원 확대 및 해외 온라인 유통벤더 초청 상담회 확대
 -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온라인몰 등록에서부터 배송, CS 등全过程을 지원하는 판매대행 전문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 판매 지원
 - * 지원목표(중기청) : ('15) 1,504개사 → ('16) 2,000개사
 -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여 판매중인 유력 벤더(셀러)를 국내로 초청하여, 국내 중소·중견 소비재 기업과 매칭 상담회 지원
 - * 초청 상담회 개최 목표(KOTRA·중진공) : ('15) 11회 → ('16) 16회
- (마케팅) 중소 전문몰 온라인 홍보 지원과 중국 현지 소비자 대상 온라인 할인행사 개최 및 참여 추진
 - 중소·중견 소비재기업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 등의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(50억원, 중기청)
 - * 해외광고(케이블TV), 검색엔진마케팅, 온라인 키워드 광고 등
 - 대규모 내수 진작 할인행사(하반기) 기간에 중국 온라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할인행사를 개최하고, 中 광군제 적극 참여 추진
- (물류) 온라인 쇼핑몰 등을 위한 국내 도시첨단물류 단지 조성 및 중국 현지 보세창고 신규 확보
 - 전자상거래 물류수요에 비해 부족한 도시내 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(e-Logis Town) 조성 추진(국토부)
 - * B2C 생활물류를 위한 시설로 온라인 쇼핑몰, 지원업체(번역서비스, 해외마케팅 등)에게 조성 원가(적정 이윤 포함)로 공간 제공
 - 금년 상반기 중 시범지구 5곳을 우선 선정하고, 확대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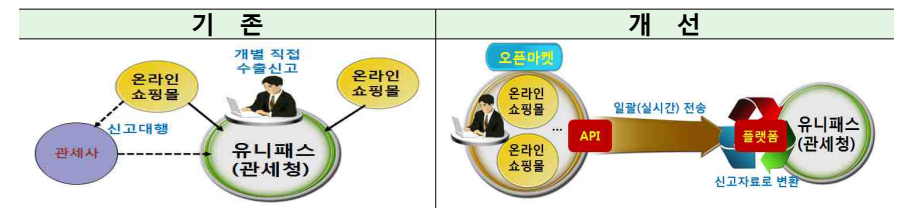
- 중소·중견기업을 위한 중국 현지 보세창고* 신규 확보(5개)
 - * 인기상품을 현지 보세창고에 미리 입고·보관 후 주문시 소비자에게 발송
- (반품) 반품지원 센터 운영 및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 도입 추진
 - 중국 현지(상해, 위해)에 제품하자, 고객 변심 등으로 반품 요청이 들어온 제품 처리를 지원하는 센터 설치·운영(우분, 코트라)
 - 온라인 해외 판매 제품에 수출통관 표지(QR코드) 부착으로 현지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(관세청)

2 인프라 확충

- (통관)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확산 추진
 - 현재 Kmall24(무협)와 UNIPASS(관세청)간 시범운영 중이며 하반기 중 주요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 추진(목표: 10개사)

<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개념도 >

(오픈마켓) 판매 내역 일괄전송 ⇨ (플랫폼) 수출신고자료 변환 ⇨ (유니패스) 수출신고



- (국제협력) 한중일 디지털 시장 단일화 추진을 통해 3국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기반 마련
 -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추진 로드맵*(안)을 마련(기재부, 하반기)
 - * 지재권, 과세기준, 보안·결제 등 규제·기술장벽 해소방안
 - 3국 통상장관회의에서 로드맵을 채택하기 위한 3국간 협의 추진

◇ 전자상거래 수출 : ('15)1조원 → ('16년)1.5조원 → ('17년)2조원

5 지원체계

5 지원체계 : 제조업 중심 → 서비스업 등 포괄 지원

1 수출지원기관 기능 재편

- ☐ 제조업 위주에서 **소비재 및 서비스 분야**로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지원기관의 기능을 재편
 - 산업부 수출지원기관(KOTRA, 무보 등)의 지원 범위를 **소비재, 서비스 분야**까지 확대
 - 타부처 수출지원기관과 **협업 체계** 구축
 - * 산업부 수출지원기관(KOTRA, 무보 등)과 분야별 진흥기관(aT, 보건산업진흥원, 콘텐츠진흥원 등)을 연계
 - **창조경제혁신센터**(유망품목 개발)와 **중기 수출지원센터**(마케팅 지원)간 연계 강화로 지역별 수출지원 체계 마련

2 수출기업 애로 One-Stop 해소체계 구축

- ☐ (분기별) 대통령 주재 **무역투자진흥회의**를 통해 정책방향 제시
- ☐ (월별) 소관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수출 애로사항을 산업부 장관 주재 「**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**」 통해 우선 해결
 - **분야별 4대 분과***를 설치하고 소관부처 차관급 책임하에 운영
 - * 기존주력(산업부), 화장품의약품·의료서비스(복지부), 농식품(농식품부·해수부), 문화콘텐츠(문화부)
- ☐ (상시) 수출기업 애로해결 지원을 위해 **관련부처**와 KOTRA·무보·중진공 등 **수출 유관기관**으로 구성된 「**수출애로현장점검반**」 운영
- ☐ (정례) 해외 애로해결 지원을 위해 **주한 외국상공회의소** 및 **공관***과 「**수출애로협의회**」 운영
 - * 국가규모에 따라 산업부 장관, 차관, 차관보 참석

Ⅲ. 기대성과

수출의 양적확대와 질적 제고로 부가가치 증대

시장

신규 FTA 발효국과의 교역 확대



품목

소비재 수출비중 6% 달성



주체

내수기업 3,000개사 수출기업화



방식

전자상거래 수출 1조5천억원

